

## 노사관계 동향

### 노사분규 동향

#### ◆ 노사분규 전년동기대비 대폭 감소

○ 2005년 9월 20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함(표 1 참조).

- 분규발생건수는 245건, 분규참가자수는 107,030명, 근로손실일수는 675,686일로 각각 전년동기 수치인 432건, 180,740명, 1,053,697일보다 크게 감소
- 손실일수는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임.

#### 〈표 1〉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

(단위 : 개소, 명, 일)

	2003. 9. 19	2004. 9. 20	2005. 9. 20
노사분규 발생건수(개소)	287	432	245
분규참가자수(명)	126,610	180,740	107,030
근로손실일수(일)	1,125,124	1,053,697	675,686

주 : 당해년도의 누적치이며,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.

자료 : 노동부.

### 노동정책 동향

#### ◆ 유산·사신시에도 유급휴가 부여

- 2006년 1월 1일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 혹은 사산할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30~90일의 보호휴가가 부여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는 자연유산(모자보건법에 의거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)을 한 경우 유산·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,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, 28주 이상은 90일을 부여하여야 함.
  - 유산·사산휴가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유급휴가이며,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됨.
  - 휴가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, 즉 모든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며, 대기업은 30일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됨.
    - ※ 우선지원대상기업 : 광업 300인 이하, 제조업 500인 이하, 건설업 300인 이하, 운수·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, 기타 100인 이하

◆ 불법체류자 출국시킨 사용주에게 대체근로 허용

- 사업주가 고용 중인 불법체류자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자진출국시키면 출국시킨 인원만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됨.
  - 2006년 3월 말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만 대체인력 공급이 가능하며, 이들 사업주에게는 범칙금이 면제되고, 그간 제한되어 왔던 사증발급도 허용됨.
  - 또한 이 기간 중 출국한 불법체류자에게는 현행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와 동일하게 범칙금 면제 및 재입국 제한기간이 단축되며,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의 외국인인 경우,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는 구직자명부 등록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됨.

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

◆ 완성차 업종 임·단협 타결로 올해 임·단협 마무리 국면 돌입

- 현대자동차, 기아자동차, 쌍용자동차 등 주요 완성차 업종의 임·단협 타결로 올해

임·단협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함.

- 현대자동차는 8월 23일 70.9%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가결한 가운데 8월 25일부터 부분파업, 교섭 등을 반복하고 9월 8일 잠정합의를 도출한 후, 9월 12일 63.9%의 찬성으로 임·단협을 타결함.
- 임금교섭 타결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89,000원 인상, 생산목표달성 별도격려금 100%, 품질 및 생산성향상격려금 100만원, 3사 제도통합 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임.
- 타결된 단체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상여금의 경우 현행 700%를 유지하되 명절시 80만원 지급, 하도급 용역전환 관련 외주처리시 노사공동위 심의의결, 정년 유지 및 퇴직조합원 재취업프로그램 지원 등임.
- 별도 요구안으로 2009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, 사회공헌기금 10억 출연, 임단협 체결 1개월 이내에 불법파견 특별교섭 추진 등을 합의함.
- 기아자동차는 8월 26일 83.9%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가결한 가운데 부분파업과 교섭 등을 반복한 후 9월 13일 잠정합의를 도출하고 9월 15일 70.6%의 찬성으로 임금교섭을 타결함.
- 임금교섭 타결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89,000원 인상 등이고 별도 요구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함.
- 쌍용자동차는 8월 19일 85.0%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가결한 가운데 부분파업, 교섭 등을 반복하고 8월 31일 잠정합의를 도출한 후, 9월 1일 53.9% 찬성으로 임금교섭을 타결함.
- 타결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59,000원 인상, 생산장려금 250만원, 사내복지기금 5억 출연, 기능인력 채용시 30%는 비정규직에서 채용 등임.

○ 경총, 완성차노조 파업 비난

- 경총은 성명을 통해 완성차노조의 파업에 대해 ‘해고자 복직’, ‘국내생산 축소 금지’, ‘해외공장 신설과 신차종 투입시 노사 심의의결’, ‘완성차 및 부품 수입시 합의’ 등의 노조 요구는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
- 경총은 또한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완성차노조의 파업은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초래하므로 파업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

◆ 양대노총과 경총 ‘노사대토론회’ 개최예정

- 양대노총과 경총은 제조업 공동화, 실업문제, 노사정 관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.

- 경총의 성명에 따르면, 오는 10월 6일, 노사대표가 ‘제조업 공동화와 실업문제’, ‘최근의 노사정 관계’ 등에 관한 주제발표를 갖고, 노사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종합토론을 가질 예정임.

주요노동일지

(2005. 8. 22~9. 20)

년·월·일	노동정책	노사단체	기업 및 노동조합
2005. 8. 23			· 현대자동차노조: 쟁의행위 결의
8. 24		· 민주노총 경남본부: 두산재벌 비리척결 수사 촉구 및 박용성 퇴진 촉구 결의대회 개최	· 금속노조 위니아만도지회: 임단협 관련 부분파업 계속(8. 16~)
8. 25		· 공공연맹: 긴급조정 규탄 및 노동3권 완전보장 총회투쟁 개최	·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: 임금교섭 관련 시한부 파업(8. 22~8. 24) 후 업무복귀
8. 26		· 양대노총: ILO 아태지역총회 관련 기자회견 개최	
8. 29		· 민주노총 충남본부: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불법파견 규탄집회 개최	· 서울대병원노사: 임단협 잠정합의
8. 30			· 쌍용자동차노사: 임금교섭 관련 잠정합의
8. 31		· 최저임금연대: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	· 기아자동차노조: 임금교섭 관련 부분파업 계속(8. 29~)
9. 1		· 민주노총: 재벌비리, 국민혈세 낭비, 정부관료 심판 촉구 기자회견 개최	· 한국투자증권노사: 합병관련 현안사항 잠정합의
9. 2			· 발전산업노사: 임단협 잠정합의
9. 4			·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해고자 류기혁氏 자살
9. 6	· 한국노동연구원: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주요쟁점 분석 및 입법대안 모색 제1차 공개토론회 개최		
9. 7			· 대우버스노조: 임단협 관련 부분파업(9. 2~9. 4) 후 재파업 돌입
9. 8		· 민주노총: 현대의 비정규직 탄압행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	· 현대자동차노사: 임단협 등 관련 부분파업(8. 25~) 후 잠정합의
9. 13	· 한국노동연구원: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주요쟁점 분석 및 입법대안 모색 제2차 공개토론회 개최	· 화물연대: 부산지부 회원故김동운 분신 사망 관련 기자회견 개최	· 기아자동차노사: 임단협 등 관련 부분파업(8. 29~) 후 잠정합의
9. 14		· 민주노총: 故김동운 분신 관련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개최	·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: 임단협 등 관련 부분파업(9. 5~9. 13) 후 잠정합의안 도출
9. 16		· 화물연대: 故김동운 분신 관련 선전전 등 진행 · 금속노조: 제4기 위원장 선거, 과반수 득표자 없어 재투표 예정	